

[사회]

광주 오염속 마지막 길 애도

홍남순 변호사 영결식 엄수

5·18광주민중항쟁의 산증인이자 광주·전남의 대표적인 인권운동가였던 고(故) 홍남순(洪南淳) 변호사의 영결식이 17일 오전 옛 전남도청 본관 앞에서 '광주시 민주시민장(葬)'으로 엄숙히 치러졌다.

이날 오전 9시부터 거행된 영결식에는 장의위원장인 박광대 광주시장을 비롯해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명박 전(前) 서울시장·손학규 전 경기지사·강제섭 한나라당 대표·박준영 전남지사·염동연 열린우리당 의원·박석무 단국대 이사장·김박원 광주시의회 의장·홍영기 전남지방경찰청장·조비오 신부·이홍길 5·18기념재단 이사장·김진영 광주일보 사장 등 정치·시민·교육·종교계 인사 등 700여 명이 참석,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이병완 청와대 실장이 대독한 조사(弔詞)에서 "고인은 '어둠의 시대에는 법보다 양심이 앞선다'는 신념으로 민주투사들의 벗이 되셨다"면서 "80년 5월에는 계엄군의 총칼 앞에서 신음하던 광주를 온몸으로 부둥켜안고 민주주의를 목 놓아 외치셨다"고 추모했다.

박광대 광주시장은 "민족의 지도자, 인권지도자 광주의 큰 어른신이 우리 곁을 떠나셨다"며 "옛 동지들

이 삼가 옷깃을 여미고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고별의 인사를 드린다"고 애도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광주에 홍남순 변호사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람한 무등산이 광주를 굽어 안은 것과 다르지 않았다"며 고인을 기렸다.

양성우 시인은 '무등의 한 활개여 큰 봉우리여'라는 제목의 조시(弔詩)를 고인의 영전에 바쳤고, 영결식을 지켜보던 참석자들은 눈시울을 적시며 애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유족대표로 나선 고인의 차남 홍기훈(53·13~14대 국회의원)씨는 "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거울삼아 우리

가족 모두 열심히 살 것"이라며 "슬픔의 짐을 함께 나눠주시는 시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영결식을 마친 고인의 유해는 광주시 동구 궁동 생가 앞에서 노제(路祭) 후 정오께 국립 5·18 민주묘지 제 5묘역 76번 묘소에 안장됐다.

유족들과 국립묘지 측은 고인의 부인이자 5·18 유공자인 고(故) 윤이정(1992년 작고)씨의 묘도 화순군 선산에서 국립묘지로 조만간 이장할 계획이다.

5·18 당시 옛 전남도청 앞에서 '죽음의 행진'을 벌이고 양심수 무로 변론을 도맡았던 고인은 지난 14일 새벽 2시10분께 지병이 악화돼 향년 94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위정렬기자 jhlim@kwangju.co.kr

盧대통령 "민주 목놓아 외치신 분"

각계 인사 700여명 참석 고별 인사

영결식을 마친 고인의 유해는 광주시 동구 궁동 생가 앞에서 노제(路祭) 후 정오께 국립 5·18 민주묘지 제 5묘역 76번 묘소에 안장됐다.

유족들과 국립묘지 측은 고인의 부인이자 5·18 유공자인 고(故) 윤이정(1992년 작고)씨의 묘도 화순군 선산에서 국립묘지로 조만간 이장할 계획이다.

5·18 당시 옛 전남도청 앞에서 '죽음의 행진'을 벌이고 양심수 무로 변론을 도맡았던 고인은 지난 14일 새벽 2시10분께 지병이 악화돼 향년 94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위정렬기자 jhlim@kwangju.co.kr

교통 과태료 체납 1,400억

전남경찰청, 부산청보다 2배나 많아

전남경찰청이 지난 5년여동안 부과한 교통 과태료 체납 금액이 1천400억 원에 달하는 등 전국 14개 지방경찰청 중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인영 의원(열린우리당·서울 구로)에게 제출한 '교통 과태료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올 7월까지 전국 14개 지방경찰청이 부과한 교통 과태료 체납액은 서울청이 2천697억7천12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남청은 1천375억1천300만원으로 경기청(2천842억200만원)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했다.

이는 차량 대수와 인구 등이 전남청 보다 훨씬 많은 부산청(686억300만원)보다는 2배 가까이 많았고, 대구청(483억6천200만원)과 울산청(188억2천400만원)에 비해서는 각각 3배, 9배가량 높은 금액이다.

체납자도 서울청이 113만9천163명, 경기청이 126만2천349명, 전남청이 46만315명 순이었다.

■경찰이 부과한 교통과태료 체납 현황

경찰청	2000년 이후	
	건수	금액
서울청	4,476,087	269,712
부산청	1,206,808	68,603
대구청	830,542	48,362
인천청	948,114	57,528
울산청	339,249	18,824
경기청	4,781,943	284,202
강원청	486,608	27,803
충북청	743,680	41,445
충남청	1,765,278	101,031
전북청	1,352,849	78,301
전남청	2,424,942	137,513
경북청	964,526	55,035
경남청	1,042,258	58,989
제주청	149,968	4,924
계	21,512,852	1,255,325

전남청의 체납자의 체납 금액별로는 100만원 이상이 2만3천958명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500만원이 2만3천209명, 500만원~1천만원이 568명, 1천만원 이상이 181명에 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명이 무려 5,389건 3억여원 안내

운전자 1인당 과태료 체납 건수는 4.2건이고, 차량당 압류건수도 2.6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과태료 미납으로 경찰이 압류한 사례는 올해 8월 기준으로 총 2천2만4천575건으로 체납액 총액은 1조3천488억원이었다.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개인 및 법인은 1천787명이었으며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수는 16만6천609명이었다.

최고 체납자는 차모(37)씨로 5천389건, 3억1천227만원의 과태료가 체납된 상태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신고된 집회중 97%가 '유령집회'

전남경찰청, 전국 두번째로 높아

광주·전남에서 집회 신고를 낸 뒤 실제로 개최하지 않는 '유령집회'가 전체 신고 건수의 97.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지방경찰청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17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유령집회' 비율은 부산지방경찰청이 97.3%로 가장 높고 ▲전남청(97.2%) ▲서울청(97.1%) 순이었다.

전국적으로 '유령집회' 비율은 ▲2002년 93.3% ▲2003년 95.8% ▲2004년 92.1% ▲2005년 95.5% ▲올해 1~7월 95.9%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1천275건의 집회를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개최하지 않은 것을 비롯, 전국엔지니어링 노동조합(909건)·덤뜨연대 총남지부(900건) 등 일부 단체가 '유령집회' 주요 신고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법령상 집회·시위를 개최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개최 48시간 이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집회 일정이 취소되면 이를 서장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취소 통보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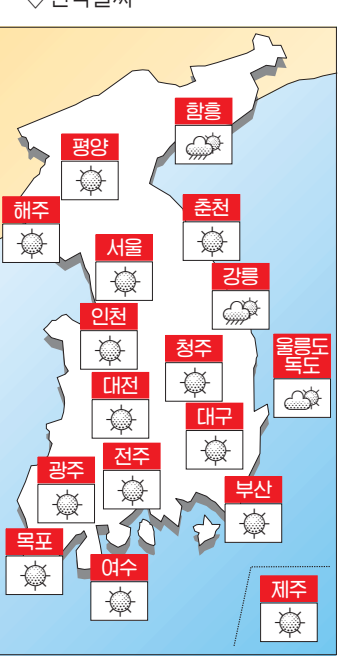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야속한 가을비 언제쯤...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았다.

10월 18일 (음 8월 27일) 날씨

지역	구름	기온
광주	구름조금	14~25℃
대전	구름조금	15~24℃
대구	구름조금	18~24℃
부산	구름조금	15~25℃
서울	구름조금	11~26℃
인천	구름조금	11~26℃
울산	구름조금	11~26℃
경북	구름조금	13~25℃
경남	구름조금	12~25℃
충북	구름조금	12~24℃
충남	구름조금	13~26℃
전북	구름조금	13~26℃
전남	구름조금	9~26℃
제주	구름많음	12~25℃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목포 밀물 < 11:59 썰물 < 05:13
여수 밀물 < 07:02 썰물 < 00:57

▲해돋이 06:40 ▲해질 17:54 ▲달출 02:49 ▲달짐 16:05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9(목)	20(금)	21(토)	22(일)	23(월)	24(화)
날씨						
최저/최고	15/24	14/21	12/24	13/23	13/21	11/23

마라톤 하면 무릎 손상되나?

가을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마라톤 대회가 한창이다. 그렇다면 마라톤이 무릎 연골을 손상시킨다는 지적은 과연 사실일까? 연세사랑병원 관절센터가 오는 20일 '세계 운동 생화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미리 살펴본다.

◇'연골손상지표' 하루 만에 회복=이번 조사는 지난 9월 17일 강화도에서 열린 마라톤대회에서 풀코스(42.195km)에 참가한 11명의 아마추어 선수들을 대상

의 농도가 뛰기 전에 비해 50% 증가했다. 하지만 10km 이후부터 20km, 30km, 42.195km를 완주할 때까지 COMP의 농도에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또 완주 후 하루가 지나자 올라갔던 COMP의 수치가 정상치에 가깝게 돌아왔다.

하지만 60km 이상을 뛰는 울트라 마라톤의 경우 100km를 뛴 후에는 COMP의 수치가 60% 정도 증가했으며 200km에 이르는 무려 300% 정도가 증가했다.

◇'근육손상지표' 3일 뒤 회복=근육손상지표 'CPK'

연골·근육 1~3일 뒤면 회복 하체 근력운동 꾸준히 하도록

으로 진행했다.

실험방법은 마라톤을 하는 동안 연골손상의 지표인 'COMP' (cartilage oligomeric matrix protein)의 변화를 측정해 연골 손상 정도를 살펴보는 것. COMP는 연골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 성분 중 하나다. 연골이 손상되면 이 성분이 연골에서 떨어져 나가 혈액 속을 돌게 된다.

조사팀은 마라톤 대회 다음날부터 6일 동안 각각의 혈액을 채취, COMP의 농도변화를 살펴봤다. 분석결과 10km를 뛴 후 COMP

는 3일 뒤 회복=근육손상지표 'CPK' (creatinine phosphate kinase) 수치의 경우는 마라톤의

거리에 비례해 증가했다. 42.195km 완주 후에는 CPK의 농도가 200%가량 높아졌으며 완주 후 다음날에는 300%로 증가, 근육 손상이 가장 심했다. 하지만 완주 후 3일째부터 CPK의 수치가 안정시와 비슷해졌다.

◇마라톤 후 5일 정도 휴식해야=확실한 근육 회복을 위해서는 5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 무릎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하체 근력 강화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다. /연필뉴스

목포·순천 택지지구 등 3곳

학교 5곳·유치원 3곳 설립

내년 상반기에 목포와 순천, 광양 택지지구에 5개 초·중·고등학교와 3개 유치원이 설립된다.

1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3월 1일자로 초등학교의 경우 30학급과 24학급 규모의 목포 애향초(옥암동)와 순천 풍덕초(연향동)를 개교한다.

중학교의 경우 ▲목포 옥암중(옥암동·24학급) ▲광양 백운중(중동·30

학급)을, 고등학교는 순천 팔마고(용당동·24학급)가 문을 연다.

신설 유치원은 ▲목포 옥암유치원(옥암동) ▲순천 풍덕초 병설유치원(연향동) ▲광양 백운초 병설유치원(중동) 등 3곳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1월 20일 광주출판(당일)

최혜은 김강산 기차여행 (무박 3일)

■여행일차 일정: 1.신시가지44번, 2.해운대44번, 3.대천항, 4.대천항1000번, 5.신시가지44번

구분	1일차	2일차	3일차
출발	08:00	08:00	08:00
도착	18:00	18:00	18:00
여행비	120,000	120,000	120,000
식사비	30,000	30,000	30,000
숙박비	20,000	20,000	20,000
교통비	10,000	10,000	10,000
기타	10,000	10,000	10,000
총합	200,000	200,000	200,000

오름이전방여행사 T. 062)525-6630 / FAX. 062)525-4755

광주지역 유일한 상설 할인매장

50% ~ 40%

OLZEN

점만 푸스온 패션 아울렛 상설 할인매장 T. 062-611-6102